

산업별 경쟁관계 분석을 통한 한국·일본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 분야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gotiation Strategie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박도준(Do-Joon Park)

Critical Thinkers Institute 연구위원/경영학 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연구 모형의 설정 | 참고문헌 |
| III. 산업별 경쟁관계 분석모형 설계 | Abstract |
| IV. 상품무역분야 협상안의 도출 | |

Abstract

I compared trade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by sector using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UN Comtrade data and SITC. Based on the comparison, I calculated market share, export competitions, RCA, and TSI, and then selected sensitive industries based on competitiveness, and identified the ZOPA and our BATNA.

These calculations confirmed the industries damaged by FTA and those benefiting from the FTA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tudy then developed strategies for FTA negotiation. It is to minimize damages to Korean economy and to maximize benefits from the agreement. The negotiation plan allowed an adjustment period for industries, for which damages are expected, by setting a long grace period before implementing tariffs. Based on the negotiation plan made through economic analysis, I intend to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promotion of negotiation by extracting the optimal FTA negotiation plan for each manufacturing industry.

Key Words : FTA, ZOPA, RCA, TSI, BATNA

I. 서론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수단의 개발과 집행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각 국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국들과의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계경제질서는 경제적 실리 중심의 세계질서 형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 형성의 큰 흐름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확대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한국·EFTA 자유무역협정의 타결 그리고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¹⁾, 및 얼마전 타결되어 국회 비준 절차 등이 남아있는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²⁾ 그리고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³⁾ 협상, 한국·EU 자유무역협정 협상⁴⁾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추세에 맞추어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ASEAN 등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일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확산 추세에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더욱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국가를 선정하여 많은 주변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체결하여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및 교역 관련 불이익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의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현 시점에서 일본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하여 FTA 협상의 주요 협상 분야 중 하나인 상품무역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효율적인 협상 방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2장에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산업별 경쟁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협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보안점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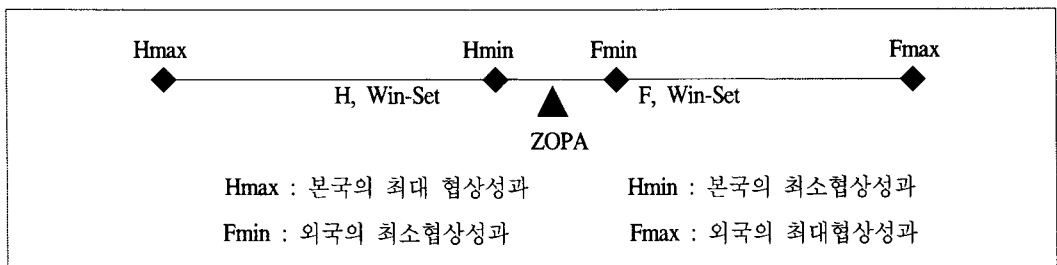
II. 연구 모형의 설정

1. 협상관련 이론적 고찰

어떤 국제적 합의든 이것이 실현되려면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비준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
- 1) 2006년 8월 현재 한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은 현재 1차적으로 상품무역분야는 합의를 도출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발표되었음, 또한 얼마 전 2차 서비스 협상이 진동 끝에 합의에 이르렀음.
 - 2) 2007년 4월 타결되어 2008년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비준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 3) 2007년 11월 현재 한-캐나다 FTA 제12차 협상이 개최되었음.
 - 4) 2008년 1월 현재 6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Putnam이 정의한 win-set⁵⁾은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적 비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이다. 협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윈 셋은 각 국가 간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으며 동시에 Level 2 에서의 win-set의 상대적 크기는 국제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즉, Win-Set이 작으면 강한 입장을 고수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Level 2에서의 Win-Set이 작을 경우에는 대외 협상의 결렬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 국제 협상에서 합의가능영역(ZOPA)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서로간의 합의도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Level 2 게임에서 Win-Set이 크면 협상파트너에게 양보할 여지가 많아져 입지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Level 1 게임에서 Win-Set이 커지면 대외협상의 타결가능성은 한결 커진다고 할 수 있다. Putnam은 win-set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국내 여러집단의 이해 및 제후관계, 국내제도, 그리고 국제교섭에 임하는 교섭담당자의 전략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 요소에 대해 Putnam은 이슈의 정책적 효과가 동질적 사안과 이질적 사안인가에 따라 win-set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슈가 이질적인 경우 국내의 여러 이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므로 각 집단은 정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win-set은 좁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비준에 필요한 지지가 많아야 할수록, 국가가 사회 각 집단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지 못할수록 win-set은 작아지게 되며 이런 경우 협상자들의 협상능력은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Level 1 게임에 있어서 각 협상당사국들은 상대국의 win-set에 관심을 가지며, 자국의 win-set이나 상대국의 win-set의 조정을 통해 국제협상에서의 잠정적 합의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림 2-1] 당사국간 Win-Set이 작을 경우의 ZOPA

이와 비슷한 분석 틀은 Grossman과 Helpman의 이익집단 모형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바 있다.⁶⁾ FTA 체결이 정치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정치적 경쟁이 정부와 정책선정 산업을 대표하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상대적인 정치력의 힘겨루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은 최대한의 유권자를 놓치지 않는 범위

5) D. R.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3. 1988
 6) G. M., Grossman, and E. Helpman, Trade Wars and Trade Talks, Working paper No 428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rch.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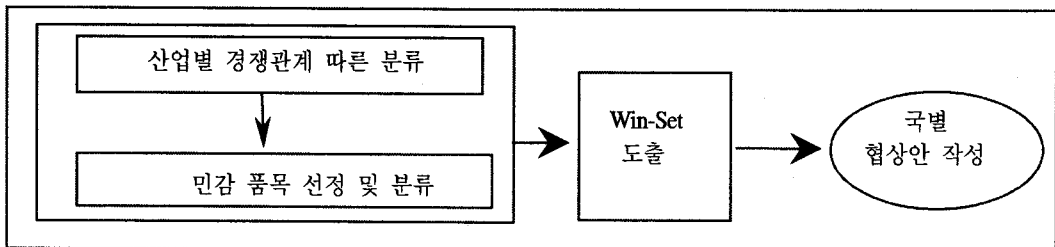
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국제협상의 이 같은 구조를 보면 국내협상에서 비준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국제협상 수준에서의 협상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현재 FTA 문제에 있어서 국내협상의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결렬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던 한국·칠레 간 FTA도 국내 농가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가 절충 가능한 win-set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협상이 진행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과 동아시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의 입장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서는 장밋빛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역자유화 움직임에 반대해온 많은 국내 이익집단의 경우 FTA체결에 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Level 1 게임에서 FTA를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지역과 추진해야 하는가는 상대국과의 정치 및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추진 안이 Level 2 게임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연구모형 설계

1) 기초 설계

FTA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 경우 더 넓은 수출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데 반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입증가로 FTA 체결 이전보다 더욱 더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고 결국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FTA 체결은 국내적으로 비교우위산업의 가속적인 발전, 비교열위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특정 산업의 육성과 퇴출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⁷⁾.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각 품목별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FTA 상대국에 대한 비교우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FTA 협상에 앞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FTA 협상전략 수립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품목을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2- 2] 연구 설계

7) 김박수, 이창재 외, “한·중·일 FTA: 제조업 부분의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5-0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30. p.35.

2) 민감품목 및 협상안 도출 방안설계

한·일 FTA 체결시 한국의 대일본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감안하여야 민감품목을 선정할 때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일본 경쟁력이 약한 품목이라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민감품목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⁸⁾. 동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효과 파악을 위해 산업 경쟁력 분석을 거쳐 별도의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민감 품목을 선정하여 보았다⁹⁾. 이를 산업별 관세철폐에 따른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측정하여 기초적인 대분류 상의 협상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1) 1단계 품목 선정

민감 품목 선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모든 상품을 객관적인 경쟁력(對세계 RCA 지수)에 의해 4개 산업 집단군으로 <표 2-1>과 같이 분류한다¹⁰⁾. 우선 제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산업의 RCA지수의 상하 폭을 작게하여 분류하였다. 제1산업군은 현재 경쟁력이 강한 산업 집단군으로 즉시 개방하여도 무방한 산업 집단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상에서 무세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품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협상 시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산업군과 제3산업군 모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다소 취약 또는 많이 취약한 상태로서 우선 제2산업군은 외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가능한 품목으로서 조건부 무역자유화 추진 산업 즉 자유무역협정 추진 시 관세 유예기간을 짧게 하여도 될 산업 집단군이며 우리가 협상 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3산업군은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으로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협상 시 관세 유예기간을 장기로 가져가며 보호를 하여야 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1단계 산업군 조정

산업군	기준	분류
1	$RCA_j^k \geq 1$	경쟁력 강한 산업
2	$0.7 \leq RCA_j^k < 1$	경쟁력 약한 산업
3	$0.4 \leq RCA_j^k < 0.7$	보호 대상 산업
4	$RCA_j^k < 0.4$	취약 산업

8) 김박수, 이창재 외, 상계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30. p.p.35-36.

9) 민감 품목 선정은 OECD,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HD82 R43 1993,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3.과 김박수, 이창재 외, 상계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및 정보통신부, *The Effect of Forming FTA between Korea IT Economy and Its Strategy of Bargining for FTA*, 2004. 를 응용하여 별도의 단계를 산정하여 분석하였음.

10) 김홍중, 이경수 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p.p.66-68. 을 참조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음.

아울러 제4산업군은 예외 품목으로 추진하거나 포기하여야 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 부문만을 중심으로 진행시키므로 동 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경쟁력 취약을 보이고 있는 품목으로, FTA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품목이 많을 것이나 국내 내부적으로 협상 시 진통을 겪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례로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볼 때 역시 농업의 경우 농가소득 보호가 필요한 민감 품목 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재취업과 재교육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2단계 품목선정

본 단계에서는 RCA 지수의 증가율을 파악하여 1단계에서 선정한 보호대상 산업과 취약산업 선정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이에 대해 재조정, 즉 RCA 지수의 증가율이 높으면 미래에 있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이므로 현재 RCA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해 쉽게 포기할 여지를 보완하고 특히 3군으로 분류된 산업의 경우 이를 조정하였다.

즉, 협상에서 조기에 포기되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단계에서 단순히 대 세계 시장에서의 RCA 지수만을 파악했는데 이는 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무시할 우려가 있어 1단계에서는 취약한 산업이지만 RCA지수의 변화폭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RCA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을 재조정 제3품목군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표 2-2〉 RCA 지수의 동태적 변화 따른 2단계 산업군 조정

1단계 산업군	변동 기준	2단계 산업군
1	⇨	1
2	⇨	2
3	⇨	3
4	RCA _j ^t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 ¹¹⁾	3

(3) 3단계 품목선정

본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협상대상국, 즉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측정으로서 각 국가와의 무역특화지수로 품목분류를 조정하고자 한다.

11) 평균 RCA 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산업군을 재조정 하였음.

<표 2-3>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산업 분류

산업군	기준	분류
1	$1 \geq TSI_{ij} \geq 0.5$	j 국에 경쟁력 강한 산업
2	$0 \leq TSI_{ij} < 0.5$	j국에 경쟁 가능 산업
3	$-0.5 \leq TSI_{ij} < 0$	j 국과의 관계에서 보호 대상 산업
4	$-1 \leq TSI_{ij} < -0.5$	j 국과의 관계에서 취약 산업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표 2-3>와 같이 무역특화지수에 따라 산업을 구분한 후 이를 1, 2단계 조정과 연결시켜 이를 다시 조정하였다.

(4) 4단계 산업군 조정

4단계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평가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산업군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산업군 품목 가운데 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을 추출하여 이들을 제1산업군인 경쟁력 강한 산업군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앞의 제1단계에서 대 세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경쟁력 평가에서는 경쟁력이 강한 수출특화 산업군인 제1산업군으로 분류되었으나, 협상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제2산업군으로 이동시킨다.

<표2-4> RCA지수와 TSI지수를 고려한 4단계 산업군 조정

2단계 산업군	변동 기준 (3단계상의 산업군)	4단계 산업군
1	$0 \leq TSI_{ij} < 0.5$	2
2	$1 \geq TSI_{ij} \geq 0.5$	1
3	$1 \geq TSI_{ij} \geq 0.5$	1
4	⇔	4

(5) 5단계 품목선정

4단계에서 분석한 협상대상국별 산업군 선정을 다시 절대적 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하고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대상 국가별로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국가와 비교 상대적 지수로 분류한 것을 다시 절대적 대세계 경쟁력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한국, 일본의 각 산업들이 수입특화산업일지라도 앞서 분석한 품목 조정에서 2, 3, 4 산업군에 속한 산업일지라도 각국의 전체 제조업 수출의 RCA 지수보다 2배 이상 높을 경우 대세계 경쟁력이 강한 산업이므로 FTA를 적극 추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각 산업군에 속한 산업 중에서 이러한 경우 한 등급씩 상향 조정하였다.

〈표 2-5〉 5단계 산업군 조정

4단계 산업군	변동 기준	5단계 산업군
1	⇨	1
2	$RCA \geq 2$	1
3		2
4		3

(6) 6단계 민감품목 선정

5단계의 과정을 거쳐 각 산업군별 후보품목을 선정한 후, 5단계에서는 FTA 적극추진 산업군(경쟁력 강한 산업), 조건부추진 품목군(경쟁력 약한 산업군) 및 민감 산업군 내에서의 미세조정 및 협상전략 세분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즉 각 산업군에서의 수출입 비중의 크기를 비교하여 품목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무세화 적극추진 품목 중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압도하는 경우 전략적 무세화 추진품목으로 선정하고, 반대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압도하는 경우 제1산업군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6단계 작업을 통해 분석한 관세 철폐의 효과를 고려 좀 더 세밀한 미세조정 작업을 거친 후 이상의 작업들을 토대로 각 산업별로 FTA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을 선정하였다.

〈표 2-6〉 6단계 품목조정에 따른 민감품목 선정

산업군	민감도	협상안
1	저 민감 산업	경쟁력이 커서 즉시 자유화가 가능한 산업 ▷ FTA적극 추진산업군
2	민감 산업	조건부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협상카드로서 활용가능 ▷ 전략적 활용가능산업: 유예기간 단기 또는 자유화 가능
3	고 민감 산업	경쟁력 약한 산업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 유예기간을 둘 필요 있음. ▷ 보호 및 육성 산업: 유예기간을 증장기로 가져가야할 산업
4	초 민감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산업 ▷ 경쟁취약 산업: 협상 시 예외로 가져가야할 산업

(7) 7단계 협상안 도출

이상의 작업들을 토대로 우리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6단계 과정을 거쳐 조정한 민감 품목과 한국·일본의 6단계 분석을 기초로 하여 3국간 산업을 비교하여 실제 협상에서 사용될 HS Code 기준의 세부적인 분석은 아닐 수 있으나 OECD의 R&D intensity에 의한 기술 수준에 따라 산업 분류를 하여 기술 경쟁력을 반영하여 UN comtrade DB의 SITC 대분류에 의한 산업별 구분으로 분석한 산업별 양국간의 관계를 고려 Win-Set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Ⅲ. 산업별 경쟁관계 분석모형 설계

1. 산업경쟁력 분석 개관

1) 분석 개관

무역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무역을 통해 현시될 때 해당 품목 또는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거나 또는 다른 무역상대국보다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 동안 제조업을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분석한 연구들은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또한 기술수준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심영섭·오영석(2001)¹²⁾, 신현수·이원복(2003)¹³⁾ 등의 연구가 있다.

2) 자료 개관

이상의 연구에서 분석한 경쟁력 분석을 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과 같이 OECD의 R&D intensity에 의한 기술 수준에 따라 산업 분류를 하여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류 대상은 제조업에 한하며 <표 3-1>과 같이 고위기술, ICT기술, 중고위 기술, 중저위 기술, 저위기술 수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분류를 바탕으로 산업별 분석 자료는 UN COMTRADE DB의 SITC기준으로 1990년도부터 가장 최근 년도인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2) 심영섭, 오영석, "한국산업의 경쟁력분석: 외환위기이후의 수출경쟁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1.

13) 신현수, 이원복,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표 3-1〉 산업경쟁력분석을 위한 품목 분류 기준

산업 대분류	산업중분류	SITC REV.3	산업 대분류	산업중분류	SITC REV.3
첨단 기술산업	우주항공	792	중저위 기술산업	석유 및 석탄제품	32, 33
	의약	54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62, 58
ICT산업	전자부품	772, 773, 778		비금속광물제품	66
	반도체	776		제1차금속제품	67
	컴퓨터 및 사무기기	75		비철 금속제품	68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76		조립금속제품	69
중고위 기술산업	화학제품 (의약제외)	5(54제외)		전기기계,전기변 환장치	771
	일반기계 및 장비	71,72,73,74		선박 및 수리	793
	전력기계 (통신장비제외)	716,771,772,773, 774,778		기타제조업	89(892제외)
	가정용전기기기	775		저위 기술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정밀기기	774, 87, 88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61, 65, 84
	자동차	781,782, 783, 784, 786	목재 및 종이제품		64, 63
	기타수송장비	791	인쇄, 출판 및 복제		892
			가구	82	

주: 이성아, 신경수, “무역구조로 살펴본 한중일 기술경쟁력 분석”, 2006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국제 지역 학회, p.p.255-256를 참조 OECD의 R&D intensity 및 SITC rev.3에 따라 재 정리.

3) 세계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 현재 한국은 선박 및 수리 즉 조선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21%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가 8%이상, 반도체가 7%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선박 및 수리 즉 조선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18.86%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기타 수송장비 분야와 반도체 분야에서 각각 14%, 13%, 13% 정도의 세계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의 경우 1990년 22%대에서 2003년 현재 13%대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소폭이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표 3-2> 한국과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

주요산업	한국				일본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우주 항공	0.30	0.41	0.58	0.33	0.70	0.87	1.37	1.29
의약	0.32	0.36	0.31	0.19	2.40	2.58	2.55	1.59
반도체	8.78	10.78	8.54	7.13	21.93	22.73	144.69	13.15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6.28	4.86	4.93	8.48	28.83	15.51	10.47	9.75
컴퓨터 및 사무기기	2.17	2.16	5.63	5.02	19.97	16.25	10.09	6.71
가정용 전기기기	4.12	5.06	5.97	5.82	5.77	3.06	1.79	1.04
기타수송장비	6.70	3.75	1.56	0.73	21.47	19.91	18.84	13.41
일반기계 및 장비	0.73	1.58	1.82	2.10	12.54	15.24	13.344	11.12
자동차	0.70	2.03	2.64	3.14	20.77	18.58	16.06	14.68
전력기계(통신장비제외)	1.42	3.37	1.75	2.14	16.78	15.81	14.11	10.71
정밀기기	1.09	1.33	1.02	1.40	15.79	16.24	15.74	12.60
화학제품(의약제외)	1.01	2.02	2.59	2.59	7.50	8.70	8.16	7.13
기타제조업	3.02	2.06	1.52	1.47	6.45	5.37	5.10	3.68
비금속광물제품	1.50	1.05	1.37	1.19	7.06	8.11	7.24	5.70
비철금속제품	0.81	1.31	1.71	1.94	4.41	5.02	4.59	4.04
석유 및 석탄제품	0.73	0.21	4.24	0.39	1.244	2.56	0.74	0.60
선박 및 수리	10.84	15.77	21.26	21.36	21.53	31.16	26.53	18.86
제 1차 금속제품	3.78	3.85	4.80	4.58	11.97	11.98	10.29	10.32
조립금속제품	3.22	4.13	3.14	2.53	7.28	7.01	5.55	4.53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2.12	3.42	3.85	3.68	7.09	7.29	6.66	6.05
가구	0.83	0.48	0.39	0.34	1.56	1.11	0.86	0.81
목재 및 종이제품	0.57	0.83	1.21	0.51	2.05	1.58	1.56	1.18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7.92	5.52	4.80	3.29	2.75	2.12	1.85	1.45
음식료 및 담배	0.99	0.84	0.83	0.64	0.80	0.70	0.71	0.62
인쇄, 출판 및 복제	0.24	0.40	0.68	0.67	1.76	1.65	2.06	2.26

2. 현시비교우위 지수 분석

RCA지수¹⁴⁾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k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가 있

14) $RCA_{ik} = (X_{ik}/TX_k)/(X_i/TX) = (X_{ik}/X_i)/(TX_k/TX)$

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한일간에 대세계 경쟁력을 파악하여 보면 아래의 <표3-3>과 같다.

<표 3-3>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지수

주요산업	한국				일본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우주 항공	0.12	0.14	0.18	0.11	0.07	0.08	0.16	0.17
의약	0.13	0.13	0.10	0.06	0.23	0.25	0.29	0.21
반도체	3.67	3.75	2.63	2.32	2.08	2.18	1.67	1.75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2.62	1.69	1.52	2.76	2.74	1.49	1.19	1.30
컴퓨터 및 사무기기	0.91	0.75	1.73	1.64	1.90	1.56	1.15	0.90
가정용 전기기기	1.72	1.76	1.84	1.90	0.55	0.29	0.20	0.14
기타수송장비	2.80	1.30	0.48	0.24	2.04	1.91	2.14	1.79
일반기계 및 장비	0.30	0.55	0.56	0.69	1.19	1.46	1.52	1.48
자동차	0.29	0.71	0.81	1.02	1.97	1.78	1.83	1.96
전력기계(통신장비제외)	0.59	1.17	0.54	0.70	1.59	1.52	1.60	1.43
정밀기기	0.46	0.46	0.31	0.46	1.50	1.56	1.79	1.68
화학제품(의약제외)	0.42	0.70	0.80	0.84	0.71	0.83	0.93	0.95
기타제조업	1.26	0.72	0.47	0.48	0.61	0.52	0.58	0.49
비금속광물제품	0.63	0.36	0.42	0.39	0.67	0.78	0.82	0.76
비철금속제품	0.34	0.45	0.53	0.63	0.42	0.48	0.52	0.54
석유 및 석탄제품	0.30	0.07	1.30	0.13	0.12	0.25	0.08	0.08
선박 및 수리	4.52	5.48	6.55	6.97	2.05	2.99	3.02	2.52
제 1차 금속제품	1.58	1.34	1.48	1.49	1.14	1.15	1.17	1.38
조립금속제품	1.34	1.43	0.97	0.83	0.69	0.67	0.63	0.61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0.89	1.19	1.19	1.20	0.67	0.70	0.76	0.81
가구	0.35	0.17	0.12	0.11	0.15	0.11	0.10	0.11
목재 및 종이제품	0.24	0.29	0.37	0.17	0.19	0.15	0.18	0.16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3.31	1.92	1.48	1.07	0.26	0.20	0.21	0.20
음식료 및 담배	0.41	0.29	0.25	0.21	0.08	0.07	0.08	0.08
인쇄, 출판 및 복제	0.10	0.14	0.21	0.22	0.17	0.16	0.23	0.30

X_{ik} : i 국의 k 상품의 대세계 수출액
 X_i : i 국의 총수출액

TX_k : 세계 전체의 k 상품 수출액(수입액)
 TX : 세계 전체의 총 수출액(수입액)

3. 산업별 무역특화 지수

무역특화지수¹⁵⁾는 해당상품에 대한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경쟁력지수(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값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는 해당상품이 무역흑자가 되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1에서 0 사이이면 수입에 특화된 경우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3-4>과 같다.

<표 3-4> 산업별 무역특화 지수

주요산업	한국				일본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우주 항공	-0.70	-0.80	-0.19	-0.22	-0.76	-0.64	-0.34	-0.49
의약	-0.42	-0.44	-0.42	-0.56	-0.53	-0.45	-0.27	-0.32
반도체	0.08	0.33	0.09	-0.05	0.60	0.54	0.36	0.34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0.64	0.49	0.42	0.66	0.83	0.51	0.39	0.41
컴퓨터 및 사무기기	0.20	0.16	0.44	0.54	0.65	0.39	0.12	0.00
가정용 전기기기	0.78	0.72	0.77	0.73	0.44	-0.11	-0.41	-0.64
기타수송장비	0.82	0.48	0.16	0.23	0.84	0.72	0.72	0.64
일반기계 및 장비	-0.65	-0.50	-0.19	-0.08	0.63	0.70	0.64	0.60
자동차	0.30	0.51	0.73	0.71	0.80	0.75	0.80	0.81
전력기계(통신장비제외)	-0.45	-0.55	-0.57	-0.46	0.64	0.60	0.49	0.40
정밀기기	-0.45	-0.55	-0.57	-0.46	0.43	0.39	0.36	0.28
화학제품(의약제외)	-0.53	-0.30	-0.10	-0.08	0.16	0.21	0.21	0.22
기타제조업	0.64	0.25	0.19	0.11	-0.28	-0.19	-0.07	-0.15
비금속광물제품	-0.14	-0.38	0.18	-0.41	0.21	0.31	0.25	0.19
비철금속제품	-0.52	-0.51	-0.31	-0.26	-0.47	-0.30	-0.25	-0.20
석유 및 석탄제품	-0.66	-0.86	-0.07	-0.87	-0.89	-0.76	-0.89	-0.93
선박 및 수리	0.58	0.56	0.95	0.91	0.86	0.96	0.96	0.98
제 1차 금속제품	0.05	-0.11	0.10	0.01	0.43	0.48	0.59	0.68
조립금속제품	0.42	0.49	0.46	0.37	0.45	0.38	0.28	0.18

$$15) TSI = \frac{X_{ij} - M_{ij}}{X_{ij} + M_{ij}}$$

X_{ij} : 일정기간 동안 i 국의 j 상품에 대한 총 수출

M_{ij} : 일정기간 동안 i 상품에 대한 총 수입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0.35	0.56	0.61	0.55	0.52	0.51	0.44	0.43
가구	0.33	-0.09	-0.02	-0.37	-0.54	-0.73	-0.76	-0.75
목재 및 종이제품	-0.55	-0.45	-0.06	-0.50	-0.69	-0.75	-0.68	-0.72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0.73	0.52	0.56	0.39	-0.41	-0.59	-0.60	-0.63
음식료 및 담배	-0.25	-0.36	-0.43	-0.53	-0.88	-0.91	-0.90	-0.88
인쇄, 출판 및 복제	-0.86	-0.82	-0.70	-0.63	-0.63	-0.63	-0.45	-0.25

IV. 상품무역분야 협상안의 도출

1. 산업별 조정 작업

앞서 언급한 연구 모형의 설정과 같이 총 7단계의 분류에서 경쟁력지수에 따라, 품목별·대상국별 품목 조정 그리고 민감품목 선정과 협상안 도출 순으로 연구를 진행한바 우선 6단계 품목 조정의 결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FTA적극 추진산업군, 전략적 활용 가능 산업군, 보호 및 육성 산업군, 경쟁 취약 산업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협상에서 활용 가능한 잠정적인 Win-set을 도출하였다.

1) 경쟁력 관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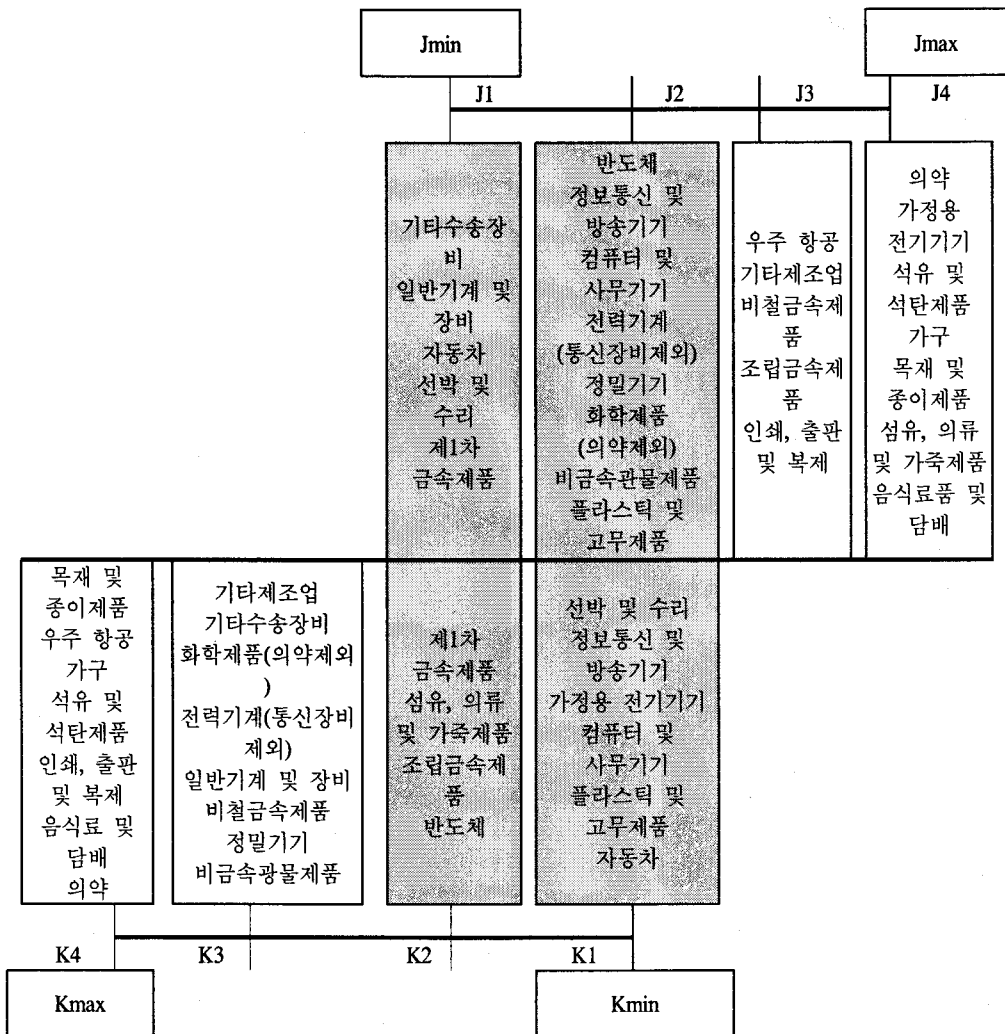
경쟁력 관계를 고려 산업군으로 분류한 것을 FTA와 연결 시켜 FTA 적극 추진 산업군, 전략적 활용 가능 산업군,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군, 경쟁 취약 산업군으로 분류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1>와 같이 도출하여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시 활용을 위하여 OECD의 R&D intensity에 따른 산업으로도 구분하여 보았다. FTA 적극추진 산업, 전략적 활용산업군, 보호 및 육성 산업군, 경쟁 취약산업군으로 구분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하였으나 각 산업군에서도 기술 수준에 따른 정부의 고려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FTA 협상이 재개 되었을 경우 그리고 타결되었을 경우 각 기술구분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산업 지원정책을 구사하여야 할 것임.

<표 4-1> 품목조정에 따른 협상안 도출

한국			일본		
협상 민감도	SITC 산업구분	OECD 기술구분	협상민 감도	SITC 산업구분	OECD 기술구분
FTA 적극 추진 산업군	선박 및 수리	중저위기술산업	FTA 적극 추진 산업군	기타수송장비	중고위기술산업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ICT 산업		일반기계 및 장비	중고위기술산업
	가정용 전기기기	중고위 기술산업		자동차	중고위기술산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	ICT 산업		선박 및 수리	중저위기술산업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제1차 금속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자동차	중고위 기술산업		반도체	ICT 산업
전략적 활용 가능 산업군	제1차 금속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전략적 활용 가능 산업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ICT 산업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저위기술산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	ICT 산업
	조립금속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전력기계(통신장비제외)	중고위기술산업
	반도체	ICT 산업		정밀기기	중고위기술산업
보호 및 육성 산업군	기타제조업	중저위기술산업	보호 및 육성 산업군	화학제품(의약제외)	중고위기술산업
	기타수송장비	중고위 기술산업		비금속광물제품	중저위기술산업
	화학제품(의약제품)	중고위 기술산업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전력기계 (통신장비제외)	중고위 기술산업		우주항공	첨단기술산업
	일반기계 및 장비	중고위 기술산업		기타제조업	중저위기술산업
	비철금속제품	중저위기술산업		비철금속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정밀기기	중고위 기술산업		조립금속제품	중저위기술산업
	비금속광물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인쇄, 출판 및 복제	저위기술산업
경쟁 취약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저위기술산업	경쟁 취약산업	의약	첨단기술산업
	우주 항공	첨단기술산업		가정용 전기기기	중고위기술산업
	가구	저위기술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중저위기술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중저위기술산업		가구	저위기술산업
	인쇄, 출판 및 복제	저위기술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저위기술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저위기술산업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저위기술산업
	의약	첨단기술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저위기술산업

2. 한일 FTA 제조업 분야 Win-Set

거시적 분석과 산업별 경쟁력에 따른 분석을 통해 마지막 7단계로 협상안을 도출하여 보면 우선 한·일 FTA 추진시 제조업 분야 가상의 WIN-SET은 아래의 <그림 4-1>과 같다. 지금까지의 6단계의 분석과 분류를 통해 살펴본 제조업 분야에서의 민감품목과 이를 바탕으로 한 Win-Set 선정은 향후 있을 협상에서 시나리오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그림 4-1] 한일 FTA 추진시 제조업 분야 가상의 WIN-SET

한국과 일본간의 FTA 역시 <그림 4-1>와 같이 Win-Set을 형성하여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FTA 적극추진산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산업은 J1, J2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J1산업으로는 기타 수송장비, 일반기계 및 장비, 자동차, 선박 및 수리, 제1차 금속제품과 J2그룹에 속하는 반도체,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전력기계(통신장비제외), 정밀기기, 화학제품(의약품제외), 비금속광물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Win-Set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K4에 해당하는 목재 및 종이제품, 가구, 석유 및 석탄제품, 음식료 및 담배와 의약품에서 일본 역시 J4로 나타나 협상에서 예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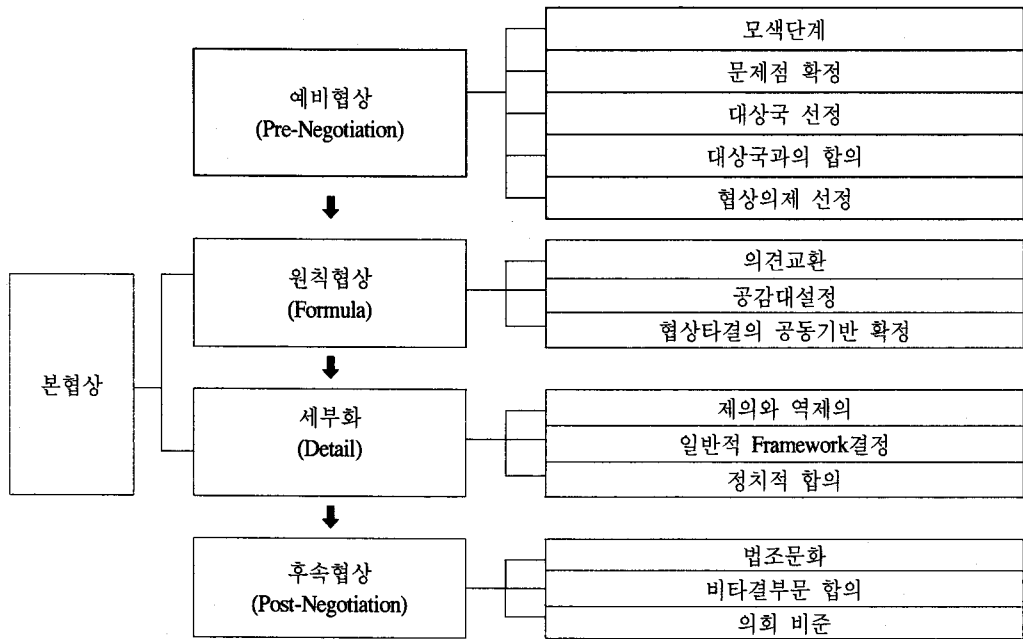
아울러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의 경우도 한국은 K2, 일본은 J4에 있어 한국의 경우 타 산업과 연계하여 관세 유예기간측면에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K3에 해당하는 일반기계 및 장비 산업과 기타 수송장비 산업의 경우 일본의 입장에서는 J1에 들어가므로 이 경우 한국의 K2에 해당하지만 일본의 경우 J4에 해당하는 섬유 산업과 연결시켜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더욱 세밀히 품목별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Trade-off 가능 품목을 선정하여 협상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K1, J1에 해당하는 산업의 경우 우리와 일본 모두 경쟁력이 커서 즉시 자유화가 가능한 산업으로 협상시 FTA적극 추진산업군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K2, J2에 해당하는 산업의 경우 조건부 자유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협상카드로서 전략적으로 활용가능한 산업으로 협상시 유예기간 단기 또는 자유화 가능산업으로 협상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K3, J3에 해당하는 산업은 경쟁력 약한 산업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산업으로서 양국모두 유예기간을 중장기로 두고자 할 것이므로 타 산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4, J4에 해당하는 산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산업과 앞으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업으로서 협상 시 예외로 가져가야할 산업으로 협상시 이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FTA 협상 방향

FTA 협상은 <그림 4-2>와 같이 크게 예비협상, 본 협상, 후속협상의 3단계 기본 협상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예비 협상단계에서는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의 협상을 의미한다. 한·일 FTA 협상의 경우 협상이 현시점에서 담보상태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사시켜야할 중요한 협상으로서 동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Win-set범위 속에서 우리나라는 본 협상 단계에서 이에 근거한 원칙협상을 재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산업들을 세분화하여 일반적 framework을 결정 trade-off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협상 단계는 FTA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Win-Set을 이용한 제안과 역제안을 통해 공감대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 FTA협상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하나의 패키지 형태(single undertaking)의 형태로 상호간의 양허안을 타결시키는게 부문별로 별도로 타결시키는 것보다 우월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출처: 산업연구원,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2001.8. p.248

[그림 4-2] FTA협상의 전개과정

V. 결 론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통상 협상의 경우 대내 협상과 대외협상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외적인 협상에서의 우리측 손익을 명확히 짚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취약산업에 대한 대국민 구제 방안과 해당 협정의 취지와 이익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그릇된 편견은 화를 자초할 수가 있다. 실례로 항상 제조업 전면 개방과 농산물의 무조건적인 보호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농업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다 경쟁우위에 있으며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도 보호해야 할 산업과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산

업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과의 FTA 추진 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은 더욱 면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현 상황과 FTA 체결을 통해 바뀔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각 산업별 경쟁력을 파악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과 한·일 관계의 진전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업구조의 고도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부품 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진흥, 기술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사양산업과 중복과잉투자 산업의 구조조정, 해외 현지 진출 등의 정부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의 방향과 그 성과가 달성될 경우 FTA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산업의 피해를 협상이전에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협상에서 우리의 BATNA와 일본의 BATNA가 무엇인지 산업 구조적 분석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서로간의 ZOPA를 찾아본다면 한·일 FTA는 우리 경제 미래에 멋진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일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데도 현재 지지부진하게 추진 자체가 모호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간의 산업구조와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볼 때 항상 FTA추진에서 우리에게 개방과 추진의 근거가 되어온 제조업 부문에서도 상당수의 민감산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FTA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민감품목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외는 FTA의 긍정적인 효과 자체도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분석한 4단계로 제조업 역시 나누어 각각에 맞는 협상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예기간을 통한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통해 해당 산업들의 자체적인 구조개혁과 경쟁력 향상의 시간을 준다면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는 현재는 취약산업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기간 동안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가계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제조업 분야만큼은 우리가 우위에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형태로 산업을 구분하여 협상에서도 우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협상을 통한 이익 극대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협상에서 상품분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HS 상품분류가 아닌 UN에서 사용하고 있는 SITC 자료를 대분류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연구를 구체화시키기 어려워 대분류로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같은 산업 군중에서도 그 격차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실제 협상안 작성시 HS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곽노성, 『국제협상론』, 경문사, 2000. 8.
- 김박수, 이창재 외,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5-0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30.
- 김홍종, 이경수 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 산업연구원,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2001.8.
- 신태용, 김학기 외,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 방안의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산업연구원, 2001.
- 심영섭, 오영석, “한국산업의 경쟁력분석: 외환위기이후의 수출경쟁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1.
- 신현수, 이원복,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 이성아, 신경수, “무역구조로 살펴본 한중일 기술경쟁력 분석”, 2006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2006.
- 이승훈,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이 비교우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경제학회, 1993.
- 정보통신부, The Effect of Forming FTA between Korea IT Economy and Its Strategy of Bargaining for FTA, 2004.
- Frankel, J. A. Regional Trading Bloc: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 Grossman, G. M., and Helpman, E. 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 NBER Working Paper No.4597, Cambridge, 1993.
- OECD,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2003.
- _____,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HD82 .R43 1993,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3.
- Putnam, D. Robert.,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3. 1988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호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호